**왕되신 예수님을 위해 자원하는 군사가 되라**

**지금이 그때이다!/더치 쉬츠**

****

† 왕되신 예수님을 위해 자원하는 군사가 되라 지금이 그때이다!

나의 좋은 친구이자 목사이며 작가인

에디 로렌스는 2004년 3월12일에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다.

미국의 법원들, 더욱이 연방 대법원에 곧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견해가 달라지는데, 하늘의 법원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쪽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열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달, 7월에 이 땅에 변화를 알리는 신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가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새로운 양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폭동과 의로움이 한데 뒤섞이겠지만

의로움이 득세할 것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때입니다.

평소 같으면 비가 없는 달이지만

그때에는 비가 계곡을 흘러넘쳐 높은 곳에서 흘러내릴 것입니다.

정부의 통치자들이 다가오는 변화에 맞서 싸우겠지만

성도들이 하늘의 법령을 가지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부가 득세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방패막이를 세우고, 사슬을 끊고

변화를 가져올 검을 휘두르는 능력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에디가 말한 변화는 “뜨거운 달...7월”에 오코너 대법관이 사임하면서 시작되었다.

비와 홍수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또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항하는 전쟁이 있겠지만,

성도들이 하늘의 법령을 가지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부가 득세할 것이고...

끊임없는 기도가 능력을 풀어놓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점에 주목하라.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된 우리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나는 낙태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오코너의 사임 후에 열심히 외쳐대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다.

그들은 임신 중절 합법화에 반대하는 후보자가 확정되는 것을 소리 높여 반대하며

악담을 퍼붓고 있었다.

그들은 “50개 모든 주에서 시위를 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다”고 말했다.

그 소리에 나는 빙그레 웃음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만하거나 잘난 체하는 게 아니며 자기만족에 빠져서 그런 것도 아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이세벨의 추종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생명의 적들은 가는 곳마다 매인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의 군사들과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할 것이다.

이미 큰 성과를 거두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것인 이 나라를 지킬 청지기 직분을 교회에게 주셨다.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말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왕 같은 제사장, 정부, 하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해 자원하는 군사가 되라.

지금이 그때이다!

더치 쉬츠의 "왕처럼 기도하라" 중에서 발췌